

월간 「KIEP 세계경제」

아프리카 경제전망

朴英鎬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parkhy@kiep.go.kr]

요약

2006년 아프리카경제는 비석유 일차산품의 국제시세 하락전망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의 신규유전개발 및 원유생산설비투자 증대, 선진국(G-8)의 원조확대 및 외채탕감 방침 등의 요인에 힘입어 지난 197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높은 5.9%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유국과 비산유국간의 성장전망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앙골라를 위시한 산유국의 경우에는 7.8%의 고성장이 전망된다. 아프리카대륙의 글로벌경제체제로의 편입의지가 가시화되면서 국제사회도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아프리카를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아프리카는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재조명되어야 하며 이에 비례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아프리카 경제는 국제유가의 상승 기조를 바탕으로 한 산유국의 원유생산 및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2004년에는 앙골라, 차드, 적도기니 등 산유국의 활발한 신규유전개발에 따른 산유량 증대와 가뭄해소에 따른 농작물작황 호조 등으로 5.3%의 성장세를 실현하였으며, 2005년에는 면화 국제시세 하락 및 섬유교역 쿼터제 철폐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인 4.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6년 아프리카 경제는 비석유 일차산품의 국제시세 하락전망에도 불구하고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의 산유량 및 원유생산시설투자 확대, 선진국(G-8)의 원조확대 및 외채탕감, 분쟁감소에 따른 정치적 안정, 구조개혁정책의 정착화 등 여러 요인들에 힘입어 5.9%의 괄목할만한 성장세가 전망된다. 이는 IMF 전

망자료에 따른 것으로 성장전망치가 실현될 경우 이는 지난 197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¹⁾. 인플레이도 거시경제의 안정화 및 자국화폐의 평가절하 등으로 30년 만에 가장 낮은 7%대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2006년 아프리카 대륙은 물가안정 속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성장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산업구조 또는 경제적 특성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베냉, 부르키나파소, 케냐, 모리셔스 등과 같은 면화 또는 섬유 의존형 국가들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품의 국제시세 하락과 세계 섬유교역 쿼터제의 폐지로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산유국의 경우에는 7.8%대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유국 가운데에서도 서아프리카 기니아만의 앙골라, 차드, 적도기니 등 신흥 산유국들이 다국적 오일메이저들의 사업진출에 따른 활발한 신규 유전개발 및 생산 활동으로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2003년 원유생산 증가와 더불어 농업생산 호조, 공공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전례 없는 10%대의 고성장을 시현한 바 있는데, 금년에는 3.9%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06년에는 지속적인 산유량 확대로 4.9%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나이지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경제성장 기조는 역시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대외적 요인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OPEC 회원국이자 세계 10대 석유수출국으로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주요국별 경제전망치 (단위: %)

	실질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¹⁾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아프리카대륙	5.3	4.5	5.9	7.8	8.2	7.0	0.1	1.6	3.5
마그레브	5.0	3.7	5.6	2.9	2.9	3.3	13.1	19.1	23.6
알제리	5.2	4.8	5.3	3.6	3.5	4.3	13.1	19.1	23.6
모로코	4.2	1.0	5.9	1.5	2.0	2.0	2.2	-1.6	-2.8
튀니지	5.8	5.0	5.9	3.6	2.9	2.5	-2.0	-2.6	-2.5
SSA ²⁾	5.4	4.8	5.9	9.3	9.8	8.2	-2.1	-1.0	0.8
수단	6.9	8.0	13.6	8.4	7.5	7.0	-6.2	-6.0	-0.8
콩고	6.8	6.6	7.0	3.9	23.2	8.0	-5.5	-5.1	-7.9
우간다	5.8	5.9	6.6	5.0	8.2	4.5	-1.7	-3.2	-5.5
앙골라	11.1	14.7	27.6	43.6	22.0	10.5	4.4	8.8	15.9
나이지리아	6.0	3.9	4.9	15.0	15.9	7.3	4.6	9.5	13.4
남아공	3.7	4.3	3.9	1.4	3.9	5.3	-3.2	-3.7	-3.5
비산유국	4.6	4.3	5.2	7.1	7.8	7.4	-2.8	-3.7	-3.5
산유국	7.5	5.1	7.8	10.0	9.3	5.9	7.3	12.8	17.3

주: 1) GDP 대비 비중 2) 사하라이남지역으로 남아공 제외.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 9.

1) 다만, 그 동안 아프리카의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경제가 기후변화와 정치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소국 가운데 최근 들어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는 에티오피아를 들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침체상태에 빠져있던 에티오피아 경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과 개혁 정책 등에 힘입어 나뉠대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4년에는 해갈에 따른 농작물 작황 호조로 10% 이상의 보기 드문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는 2005년의 7.3%에 이어 5.0%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아프리카 가운데에서는 아프리카의 모범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튀니지의 뚜렷한 성장세가 2006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물가도 가격자유화, 임금상승, 불안정한 농산물 작황, 국내 수요확대 등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절한 재정·금융정책 및 공산품 가격하락 등으로 2.5% 내외로 안정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튀니지의 경제성장은 수출주도형 제조업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 석유자원이 풍부한 리비아, 알제리 등 인근 마그레브 국가들과는 달리 인산염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자원이 없는 튀니지로서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성장전략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이에 따라 튀니지는 내부적으로는 신흥공업국 형태의 발전 전략에 주력해 나가면서 대외적으로는 EU와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적극 모색해 왔다. 또한 튀니지는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원만히 진행되면서 기초경제여건이 마련되고 경제구조의 선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튀니지 경제는 대외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튀니지는 아프리카국가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국가이자 성장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더라도 튀니지는 아프리카국가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2. 경제성장의 저해요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 경제는 최근 들어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대외적인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즉 아프리카 장기 경제전망에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과연 아프리카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때 잠재력이 현실화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개혁은 미완의 것으로 개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완결된 청사진 마련도 쉽지 않다. 1990년대 이후 개발정책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에는 구조적으로 많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국내자본 부족과 실업문제,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정치적 불안, 생산성을 정체시키는 낙후된 물적, 인적시스템 등이 성장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성공적 수행은 용이하

지 않다. 심지어는 에이즈문제까지도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수하다.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는 그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프리카의 현실이다. 결국,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아프리카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못하다. 최근 아프리카가 보여주고 있는 경제 성적표로는 지금의 낙후된 경제구조와 절대빈곤에서 탈피할 수 없으며 높은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6~7%대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아프리카제국은 공업화를 통한 개발정책을 의욕적으로 추구해 오고 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 특징은 산업구조의 후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공업화 노력은 자본 및 기술능력의 절대적 부족, 경제운영 능력의 부재, 비합리적인 관료제도, 정치적 불안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극히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의 산업구조가 원유, 농산물, 광산물 등 일차산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모노컬처” 형 단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후진성으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전반이 기후변화와 일차산품의 국제시세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방향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대륙은 퇴보와 절망이라는 암흑의 역사 속에서 “위기의 대륙”으로 명명되면서 발전가능성에 대한 보편적 논리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대륙에 정치적 안정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성장가능지대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대륙의 글로벌 경제체제로의 편입 의지가 가시화되면서 국제사회도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아프리카를 기존의 단순한 원조대상국이 아닌 새로운 경제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프리카는 새로운 기회의 시장 또는 협력파트너로 재조명되어야 하며 이에 비례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도 커져야 할 것이다. 우리와의 경제협력에 대해 세계 경제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가 우리와의 경제협력 면에서 지니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교역과 에너지 자원의 다변화이다. 국제무역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는 결국 소홀히 해서는 안될 소중한 잠재적 시장이다. 아프리카는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구매력이 낮아 아직까지는 한국 상품의 진출이 미미하나,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진출여건이 나쁘지 않은 미개척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석유자원 확보의 다변화 지역으로도 중요하다. 아프리카대륙의 석유자원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미개척지로 앞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특히 서아프리카지역의 경우 나이지리아, 앙골라, 적도기니 등의 산유국이 몰려있는 기네아 만에서 심해 유전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2008년경에는 일일 생산량이 700~8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 오일메이저들이 아프리카 석유 개발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그 만큼 아프리카의 개발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석유수급 문제는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우리도 아프리카를 석유시장 다변화를 위한 관심지역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 맞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참고문헌>

박영호. 2005.7.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평가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MF. 2005.10. *World Economic Outlook*.

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2004. *West Africa Oil and Gas Sourcebook*.

Oxfordanalytica